

안녕하십니까?

13번 훈련병 구인희입니다.

모두를 몸건강히 안녕들 하신가요?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라 많이들 감기에 걸리는데 감기걸린 사람 없죠? 여기는 계절 변화는 지르 올라요. 오늘 밖에 나가서 낙엽떨어서 조금 가을이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일교차도 심해서 아침에는 단단 떠는 사람도 있지만 저든 오버리도 건강할건지... 훈련받을때 열외좀 받고 싶는데.

추석 마지막 연휴입니다. P.X (매점) 에서 며칠전에 과자를 단체구매하는 내왕에 과자가 싹쓸입니다. 왠까지 다 먹지 않으면 배리질당한다. 나원향~ 가족입니다. 수저로 먹고...

잠을 그렇게 잘 자던 제가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밤마다 경계는 부침번 때문에... 훈련소에서 부침번 없다고 아무도 안그랬는데 ... 부침번 드는날이면 다음날 하루가 어질~어질합니다. 이틀전엔 외각경계했는데 완전 잠도 못자고... 아호~ 훈련받고 들어오면 ~~완전~~ 완전 땀에 젖어서 들어옵니다. → 근데 재밌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훈련거 낫아요. 인분사건 뒤라서 그런지 구약도 없고 목도 안하고 여자들도 반입합니다. → 뭐 인침보호관라고 하더라구요.

근대에 오고나서 벌써 그거차네요. 3주차를 달리고 있습니다. * 주차스티커 라고 있습니다. 몇주 됐다고 나타내주는 스티커인데 그거 채우는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수첩~~ 수첩뒤에는 달력을 손수 그려서 자운 자피로 살고있으며 매주 쉬는날인 주말을 기대하며 살고있습니다. 정말이지... 비참해요... ㅠ.ㅠ 아무튼... 그주차가 되어서... 그번이나 꾸밈이 왔었고... 교회도 그주나 갔었습니다. 주장, 야간 예배로 그번을 드리는데 (전당면히 들다갔죠~으흐)

야간예배때는 찬양팀이 와서 찬양예배를 드리고, 주장에게는 그냥 예배드려요. 주장예배때 처음갔을때는 적음이 많이 안패터 권요. 예배당이 몇천명이 군인들이라서 예배드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 왔다가 보면 예배후에 주는 후회과 시간때우기 원천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많이



되어라고요. 세상의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인데도 많이 다른 느낌과 생각이가지고 들었던것 같습니다. 아!! 영신이행!! ㅋㅋ 심로암 맨날 ~~찬양~~ 불러요. 부를때 마다 ~~행복~~ 나오 → 은근은나 생각도 났었는데... 아~ 참 곡수역사가 안좋은 면발을 봤을때... 나도 모르게 그만 웃음이나면서... → 아무튼... 저쪽 예배때... ~~찬양~~ 찬주에는 L.P (Love People) 이라는 찬양단이 왔었고 둘레주에는... 영광의 찬양 (?) 이 와서 찬양예배드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이 힘들고 어쩔진 않아서 몸이 지끈하지는 않는데... 예배드리고 나면 피로감 힘들었던게 삭~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 무슨일인지 몰아알아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어리웁네요? ㅋㅋ 느끼는거야~!! ㅋㅋ 애꾸 주장이 ~~가~~ 거려 강합니다. → 교회에서 학교정도 만나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그정도 자부 같은 중대 되어라고요. 같은 의병 → 세상 참 좁더라구요~

아... 무슨 말을 이렇게 빨리여냐... 배고프지도 않구만... 젠장 → 살지않게 아신지 모르겠어요~ → 행복을 준비하라는군요. 늦으면 잔소리들이요~

아~!! 목사님!! 질문입니다!! → 예배드리다가 운동생각이 나는데도. 우리가 찬양을 하다보면 손을 들고 찬양할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거죠? 이유가 있는건가요? 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요? 근데 안 믿은 열친구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아예 대항해구야 됩지... → 궁금합니다!!

기도부탁있어요!! 우선 "예배드릴때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고 의뢰 주님만 바라보라" 이구요~ 둘째로는 "성결책 시간남게마다 읽기" 입니다. → 시간남을때 읽어야 한번씩~ 읽을수 있을것 같아요~ →

모두 건강하십시오!! 1주일만에 교회가 한번 찾아갑니다. 모두들... 그때까지... 각 잡고 예배드리세요~ → 여기서 제신 휘남은 아아 조아닝가?!
모두 행복하십시오~

2005년 9월 19일
훈련병 구인회 씬

P.S. 전라기가 상재있어서 전화할수가 없어요~
선을 들고 싶어서 면장을 써주세요~

